9, February, 2026 Vol. 111

| Bi-Weekly |

신영 ESG

"anti-ESG에 다양해져 가는 美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플랫폼"

Contents

ESG essay

신영's View

ESG 탐방 노트
GS 건설

ESG ETF 따라잡기
First Trust Emerging Markets Human Flourishing ETF (FTHF)

ESG News Clipping

ESG essay

ESG & 글로벌 유동성 담당 오광영 T.02)2004-9256 / oh.gwang-young@shinyoung.com

anti-ESG에 다양해져 가는 美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플랫폼

자체 의결권 행사 시스템 구축, 패스쓰루 보팅 (Pass-through Voting) 도입 등 점점 다양해져가는 美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플랫폼

미국 대형 금융기관들 트럼프 공격에 의결권 자문 기관과 결별하고 자체 의결권 행사 시스템 구축에 나섬 → 웰스 파고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와 계약 종료하고 자체 의결권 행사 서비스 출범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기관투자자들이 자체 의결권 행사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음.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인 웰스 파고(Wells Fargo)의 자산관리 및 투자 관리(Wealth & Investment Management, WIM)사는 자체 의결권 행사 서비스를 1월 28일(현지시간) 출범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의결권 자문 기관인 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ISS)와의 계약은 종료됨. 대럴 크롱크 웰스 파고 WIM의 CIO는 금번에 도입된 자체 의결권 행사 서비스를 통해 의결권 행사 방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밝힘. 웰스 파고는 보도자료를 통해 다가올 주주총회 시즌에 맞춰 도입된 이 새로운 시스템은 '고객의 장기적 경제적 이익에 초점을 맞춘 자체 정책과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라 운영된다'고 밝히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문기관과 같은 제3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WIM의 투자 서비스에 더욱 강화된 독립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함.

JP모건, 올해 1분기 안에 자체 의결권 행사 시스템인 AI 플랫폼 '프록시 아이큐(Proxy IQ)' 전환 완료 예정

이에 앞서 지난 달 7일(현지시간) JP 모건도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의결권 자문 기관 사용 전면 중단하고 JP모건의 내부 인프라인 '스펙트럼(Spectrum)' 시스템을 기반으로 설계된 자체 AI 플랫폼 '프록시 아이큐(Proxy IQ)'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보도된 바 있음. 또한 JP 모건은 미국 내 의결권 행사에서 자체 AI 분석 중심의 자동화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으로 이같은 전환은 올해 1분기 중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힘.

내부 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을 통해 자체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자체 의결권 행사 시스템 도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기존에는 글래스 루이스(Glass Lewis) 및 ISS 등 의결권 자문사들이 기업 이사회 및 감사 선임, 경영진 보수, ESG 관련 안건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했지만, 이제는 내부 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을 통해 자체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자체 의결권 행사 시스템 도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지난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의결권 자문 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와 같은 트렌드는 점점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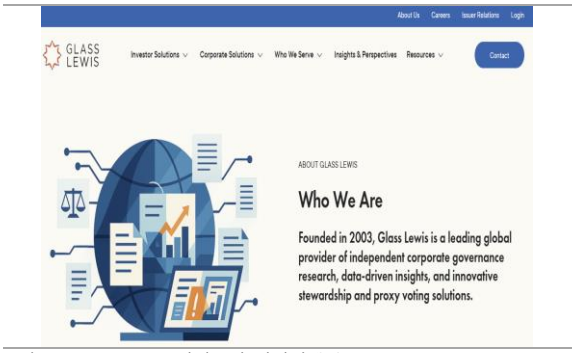
한편 이와 같은 의결권 자문 기관과 결별하고 자체 의결권 행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트렌드는 지난 해 1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결권 자문 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부터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상황임. 트럼프 대통령은 글래스 루이스, ISS를 '의결권 자문 시장의 90% 이상

을 장악한 외국 소유 회사'라고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다양성 이슈 등 ESG와 DEI 관련 주주제안을 지지함으로써 '주요 기업의 정책과 우선순위에 급진적이고 정치적 동기의 안건'을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반독점법, 부정경쟁법, 기만행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함.

2021년 글래스 루이스와 ISS는 각각 캐나다, 독일 회사에 인수됨

글래스 루이스와 ISS는 즉각 반박에 나서며 양사는 모두 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전문적·윤리적·독립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강조함. 실제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위치해 있는 글래스 루이스는 지난 2021년 캐나다 투자회사 펠로톤 캐피털과 그 회장인 Stephen Smith가 인수했으며, 메릴랜드에 본사가 위치해 있는 ISS는 2021년 독일의 거래소 그룹인 도이체 뵈르세(Deutsche Börse)에 편입되어 있는 상태임.

도표 1. 글래스 루이스 홈페이지



자료: Glass Lewis,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 ISS 홈페이지

자료: ISS,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이번 사태 이전에도 두 회사는 보수 진영의 anti-ESG 공세를 의식해 일부 의결권 정책을 조정해 왔었음. ISS는 이사 선임 권고에서 다양성 기준을 고려하는 관행을 적용 중단했고, 두 회사 모두 기후나 사회 이슈 관련 주주제안에 대한 지지 권고 건수를 줄이는 등 일정 부분 대응해 왔었으나 점점 더 공세는 강화되는 모양새임.

의결권 자문 기관 이전에는 anit-ESG 공세가 블랙록, 뱅가드 등 초대형 운용사를 대상으로 집중됨 → 이에 블랙록, 뱅가드 등 미국 대형 운용사들은 '패스쓰루 보팅(Pass-through Voting)' 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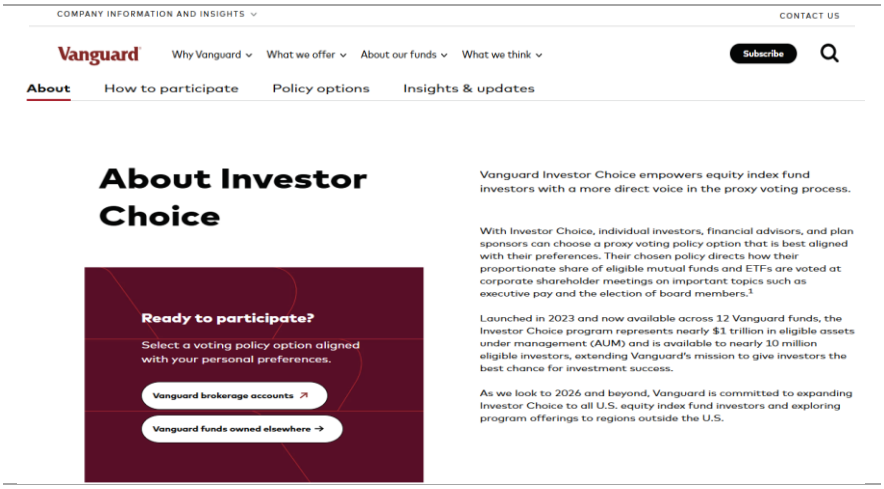
의결권 자문 기관 이전에는 anit-ESG 공세가 블랙록, 뱅가드 등 초대형 운용사를 대상으로 집중되었음. 이에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anit-ESG 공세에 대응 현황을 살펴보면 블랙록, 뱅가드 등 미국 대형 운용사들은 '패스쓰루 보팅(Pass-through Voting)' 제도를 도입하며 대응함. 일반적인 경우 투자자들은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면 자산운용사에 투자뿐만 아니라 의결권 행사도 맡기게 됨. 이에 따라 높은 지분율을 가진 초대형 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는 기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보수 진영은 이들 초대형 운용사의 의결권 정책 등이 ESG나 DEI 관련 안건 등에 지지한 것 등을 문제 삼고 있음. 이처럼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보수 진영의 anti-ESG 공세가 강화되자 초대형

운용사들은 의결권 행사가 자산운용사를 통과(pass through)해 최종 투자자가 직접 행사하도록 하는 패스쓰루 보팅 제도를 도입해 대응하고 있음.

뱅가드와 블랙록 모두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패스쓰루 보팅 제동을 도입했으며 먼저 시작한 뱅가드의 경우 이 제도가 점차 안착되어 가고 있다고 밝힘

패스쓰루 보팅은 원래 연기금 등과 같은 대형 asset owner를 위한 제도였으나, anit-ESG 공세에 점차 개인투자자로 확대되고 있음. 뱅가드는 2023년 '투자자의 선택(Investor Choice)' 이라는 개인투자자 대상 의결권 행사 제도를 도입함. 아직까지는 일부 펀드에 한해서 적용 중으로 2023년에는 약 1조 달러에 달하는 적격 운용자산(AUM)을 가지고 있는 12개의 뱅가드 펀드가 대상이었으며 약 1천만 명의 투자자에게 패쓰스루 보팅 제도가 제공되었음. 현재는 해당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운용자산(AUM)의 규모는 3배 이상 증가한 3.3조 달러에 달하며, 참여 펀드 투자자수도 2024년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해 8.2만명에 달한다며 성공적으로 안착해 가고 있다고 밝힘. 한편 블랙록도 2024년 S&P 500 ETF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에 대해 시범적으로 적용함

도표 3. Vanguard Investor Choice 관련 소개



자료: 뱅가드,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아직 국내에서는 별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지난 해 상법이 개정되고 기관 투자자들의 주주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점점 더 의결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다양한 변화나 시도가 나타날 수 있음
→최대한 국내 상황에 맞게 의결권 행사 관련 시스템이 개선되어 안착 되기를 기대함

아직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별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음. 하지만 지난 해 상법이 개정되고 주주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 등이 강화되고 정부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 제도 도입 등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주주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점점 더 의결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특히 투자자의 가치관이 다양화되면서 의결권의 소유 주체와 행사 주체의 괴리에 대한 인식도 높아져가고 있음. 다만 이러한 다양한 의결권 행사 플랫폼과 제도 등이 가져오게 될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이 있는 만큼 이를 분석해 향후 최대한 국내 상황에 맞는 개선된 의결권 행사 관련 시스템이 도입되어 안착 되기를 기대함.

ESG 이벤트 & 신영's View

포드, '포드 에너지' 출범…BESS 사업에 배터리 총괄 리사 드레이크 전면 배치

- Ford, 신설 에너지 사업부 '포드 에너지' 출범을 앞두고 리사 드레이크를 사장으로 임명. 리사 드레이크는 포드에서 30년 이상 배터리 생산을 총괄해온 인물
- 금번 임명은 신사업 확장 뿐만 아니라 배터리 저장 수요에 대한 포드의 시각을 시사. EV 보급 속도가 다소 더딜 수 있으나 배터리의 필요성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포드의 인식 변화로 해석 가능

Comments

- 예상 보다 더딘 EV 전환 속에 미국 정부의 IRA EV 보조금 폐지 이후 완성차 업체들의 EV 전략 축소가 진행
- Ford는 $195억, GM은 $76억, Stellantis는 222억 유로의 EV 전략 비용을 인식
- 이러한 전략 변화 속에 잉여 EV 배터리 캐파를 ESS 사업으로 전환하는 업체도 대두
- Ford는 지난해 CATL의 기술을 활용한 ESS 사업을 27년부터 개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Analyst 문용권

EU 전력 구조 전환 본격화…풍력·태양광 비중 30%로 화석연료 넘어

- 2025년 EU 전력 발전량에서 풍력 및 태양광 발전 비중(30%)이 화석연료 발전 비중(29%)을 처음으로 넘어섬
- 한편, 가스 발전 증가와 러시아 가스 수입 중단 영향으로 EU 전력 부문 가스 수입비용은 320억 유로(약 47조원)으로 증가. 이는 에너지 위기 이후 처음으로 연간 가스 수입 비용 증가 사례
- 전력망 투자 부족으로 값싼 전력이 생산되고도 송전되지 못하는 사례 증가

Comments

- 유럽은 재생에너지/원자력 합산 저탄소 전력비중을 늘렸으나 여전히 러시아 가스 수입 중단에 대한 여파가 전력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중
- 전력가격 상승 원인 중 하나는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 부족 및 간헐성. 이에 재생에너지지의 대규모 확충보다는 안정적 기저 발전원의 확보가 중요
- 최근 EU의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에 따른 유럽 내 가스 수급은 일부 안정화될 수 있을 전망. 그에 따른 전력 수급 및 요금 안정화도 기대

–Analyst 신홍주

삼성·애플 비상… 10년 만에 바뀌는 탄소회계 룰, 재생에너지 꼼수 안 통한다?

- 글로벌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 산정 기준인 온실가스 프로토콜(GHG Protocol)이 2015년 이후 10여 년 만에 대폭 변경 예정
-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스코프2 계산 방식이 전면 개편되는 것 → 기업들이 연간 총사용량만큼의 재생에너지 인증서(REC)를 사서 탄소 중립을 주장하던 방식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각 이해관계자간 논란이 격화됨
- GHG 프로토콜은 스코프2 산정 방식 개편안에 대한 2차 의견수렴을 1월 31일 마감함

Comments

- 제도 변화의 핵심은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인증서(REC)나 가상전력구매계약(VPPA)을 활용해 청구하는 배출 감축을 '시간·장소 매칭'으로 엄격히 제한 → 시간 단위 매칭과 지역적 일치 도입임
- 시간당 매칭과 지리적 제한은 일부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지역 기업을 중심으로 반발 격화
- GHG 프로토콜은 새 규칙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계약을 일정 부분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
- 연간 REC 구매나 녹색요금 중심의 RE100 이행 방식은 Scope 2 감축 인정이 축소되거나 배출량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 커 국내 기업도 영향권 –Analyst 오광영

ESG 탐방노트

건설/건자재/리츠 담당 박세라 T.02)2004-9507 / park.se-ra@shinyoung.com

GS건설(006360.KS)

매수(TP 33,000원)

안전과 지배구조에 집중되는 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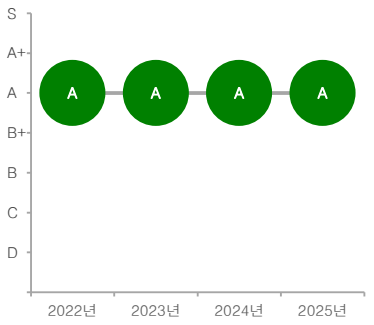
현재주가(2/6) 19,110원

ESG 등급 현황

(평가기관)	ESG	E	S	G
KCGS	A	A	A+	B+
Bloomberg	54.80	37.60	79.10	55.90

주: KCGS :S~D 7등급
Bloomberg: 100 만점 기준

ESG 등급 변화 (KCGS)



Key Data (기준일: 2026. 02. 06)

시가총액(억원)	16,355
배당수익률(26F,%)	2.6
외국인지분율(%)	24.8
주요주주 지분율(%)	
허창수 외 16 인	23.6 %
국민연금공단	6.9 %

Company Performance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0.3	2.4	-2.2	9.2
KOSPI대비 상대수익률	-11.4	-19.0	-38.5	-45.6

Environment

구 분	단위	2023	2024
온실가스 배출량	천tCO2eq	6,199	5,400
폐기물 발생량	톤	534,091	585,922
환경관련 투자비	억원	1,008	256
환경경영 인증	ISO 14001 획득		
환경경영 조직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		

Social

구 분	단위	2023	2024
LTIFR	%	0.00	0.14
기간제 근로자 비율	%	29.3	32.7
여성 근로자 비율	%	11.7	12.5
사회 공헌지출	억원	54.6	52.7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실시 중		

Governance

구 분	내 용
주주총회	1 주전 홈페이지 공고
전자투표제	미실시
집중투표제	미실시
배당 실시 배당기준일	24 년 300 원 배당 지급
이사회 운영 실적	(2024 년 기준) 9 회

ESG 관련 최신 활동

GS건설, 무탄소 분산에너지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서 선보여

(매일경제, 25.08.29)

- GS건설이 부산 벡스코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 미국 아모지(AMOGY)와 함께 무탄소 분산에너지 사업 모델을 공개함
-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분리한 뒤 HD현대인프라코어 수소엔진으로 발전하는 40피트 컨테이너형 모듈러 발전기를 선보임
- 향후 산업단지·데이터센터 등에 안정적 무탄소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포항 산단 MOU 및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후보 선정 등으로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GS건설, 협력사 안전보건관리비 증액…현장 안전 총력

(딜사이트, 25.08.16)

- GS건설이 협력사 안전보건관리비를 증액하고 안전관리비 선지급(2024년 118건·48억원) 등 경제적 지원까지 병행하며 현장 안전 강화에 집중하고 있음
- 협력사 산업재해율(LTIFR)이 2023년 3.02 → 2024년 2.40으로 낮아졌고, 2025년에도 중대재해 제로와 사고성 재해 감소를 목표로 제시

저소득 가정 청소년 위한 '꿈과 희망의 공부방' 개설

(조선일보, 25.12.31)

-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의 주거·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꿈과 희망의 공부방' 사업을 운영하며 도심 내 취약가정에 학습공간을 조성함
- 2011년부터 사업을 이어오며 누적 지원 거점을 꾸준히 늘려 저소득 청소년의 학업 지속과 자립 기반을 돕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이어나가는 중

ESG history

연 혁	내 용
2016년	[S] 해외 현장의 안전 관리 노하우 전수를 위한 싱가폴 안전혁신학교 개교
2018년	[S] ASSE GCC HSE 안전, 보건 상 수상
2019년	[ESG] 우크라이나 Zakarpattia 태양광 개발사업 수주
2020년	[E] 배터리 재활용 사업 진출 투자 협약 (친환경 신사업)
	[S] 국내 최초 건설 현장 4족 보행 로봇 도입
2021년	[ESG] ESG 위원회 설립 및 운영 개시
	[E] 포항시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사업 체결
2023년	[S]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전면 재시공 결정
2024년	[S] 24년 1월부터 매월 안전 점검의 날 운영, 전 임원 현장 점검 체계 구축
2025년	[ESG] KCGS 25년 ESG 평가 통합 A, 7년 연속 통합 A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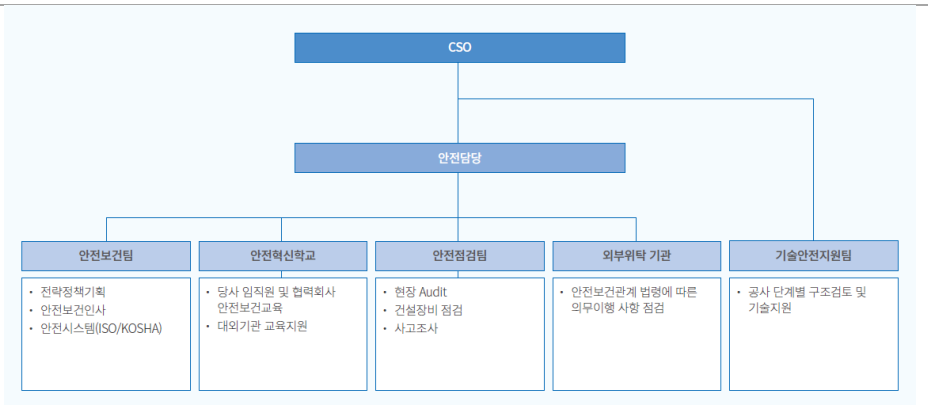
ESG 전략 - 환경(E)은 조정 중, 안전 사고(S)와 경영진 책임(S)에 집중

GS건설은 과거 수처리 사업, 폐배터리 재활용, 모듈러 주택 등 환경사업에 적극적인 인수 합병을 통한 확장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해당 사업분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 등을 통해 사업 비중을 축소한 상황임. 환경 사업을 통한 'E' 목표 달성보다는 구체적인 환경 목표 재설정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건설 현장에서의 빈번한 중대 재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의 책임 있는 대응이 더 주목받고 있음. 환경보다는 안전 사고 예방, 그에 상응하는 지배구조 개선에 집중하고 있음

안전 품질을 ESG 핵심 목표로, 신뢰 회복이 중요

2021년 인천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동사는 CSO(안전보건관리 최고 책임자)를 CEO 지속으로 배치하였음. 보건, 점검, 교육 기능에 더해 외부위탁 기관(법정 의무이행 점검), 지원팀을 구성하여 안전 사고 예방/교육에서 나아가 전체 시공 단계에서의 기술을 검토하는 조직 기능으로 변화하였음. 안전이 관리 차원을 넘어 회사의 '경쟁력'이 될 수 있음에 기술 지원 개발에 힘쓰는 것으로 풀이됨. 건설업 내에서도 적극적인 ESG 소통으로 우수 등급을 받아왔던 동사의 ESG 전략의 변화(환경보다 안전에 집중)가 향후 건설 전체의 ESG 운영에 긍정적인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기대됨

GS 건설의 안전보건 관리 조직도



자료: GS 건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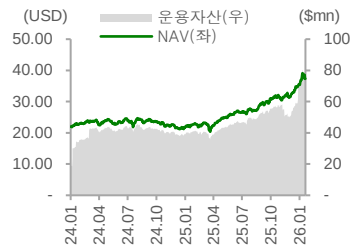
ESG & 글로벌 유동성 담당 오광영 T.02)2004-9256 / oh.gwang-young@shinyoung.com

First Trust Emerging Markets Human Flourishing ETF (FTHF)

Key Facts	
상장일	2023/10/30
기초지수	The Emerging Markets Human Flourishing Index
구성종목수	101
순자산총액 (백만달러)	78.9
시장가격(USD)	37.71
NAV(USD)	38.47
총보수(%)	0.75
운용사	First Trust Advisors

Top Holdings	(기준일: 2026.2.4)
Samsung Electronics	11.62%
TSMC	7.87%
SK Hynix	7.74%
Gold Fields	3.75%
Itau Unibanco Holding(Pref.)	3.56%
Grupo Financiero Banorte	3.42%
WEG S.A.	3.09%
Naspers Limited (Class N)	2.87%
Walmart de Mexico,	2.56%
SABESP	2.05%

NAV와 운용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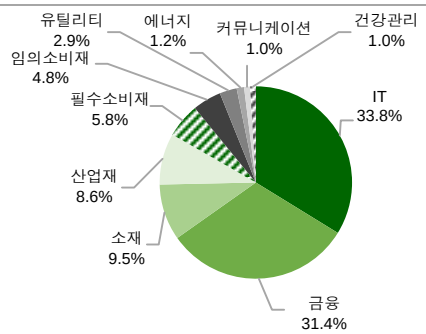
ETF 개요

First Trust Emerging Markets Human Flourishing ETF (FTHF)는 2023년 10월 상장된 ETF로, 기초지수인 The Emerging Markets Human Flourishing Index를 추종하는 ETF임. 이 지수는 블룸버그 신흥시장 대형주 및 중형주 중 워싱턴 D.C.에 위치한 비영리 단체인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가 발표하는 '인간 존엄성 점수(Human Dignity Score)'가 높은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음. 인간 존엄성 점수는 '표현 및 신념의 자유(80%)'와 종교적 박해로부터의 자유(20%)'를 기준으로 평가됨. 먼저 인간 존엄성 점수 기준 상위 50%에 해당하는 기업 중 7가지 주요 논란이 되는 관행과 관련된 기업들을 제외하고, 이후 남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정렬함. 이후 시가 총액 상위 150개 종목 중 변동성, 수익성, 레버리지를 고려한 품질 점수가 높은 100개 종목을 최종 선정함. 최종 종목 구성은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구성되며, 국가, 업종, 종목별 투자 비중 제한이 각각 적용됨. 지수는 반기별로 리밸런싱됨.

투자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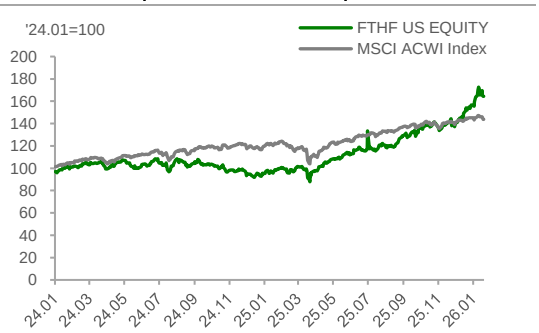
FTHF는 인권 개선에 기여하는 신흥 시장의 대형 및 중형 기업들로 구성된 ETF로 편입 종목은 인권에 대한 신념을 기준으로 선별되며, 기업의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최종 선정됨. 국가별로는 한국(25.7%), 대만(18.3%), 남아프리카(17.9%), 브라질(13.3%) 순으로 구성됨. FTHF는 신흥국 기업 중 인권 개선에 기여하는 기업들에 투자함으로써 인권과 존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은 투자자들에게 적합함

FTHF의 업종 구성 비중



자료: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2.04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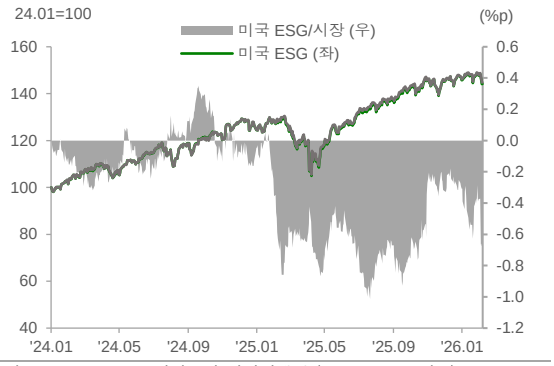
시장과 성과 비교 (MSCI World와 비교)



자료: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2.06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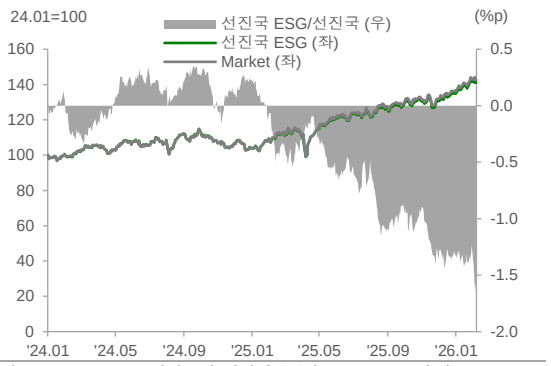
ESG 관련 DATA – 주요 지수 및 ETF의 성과 흐름

미국 주식 ESG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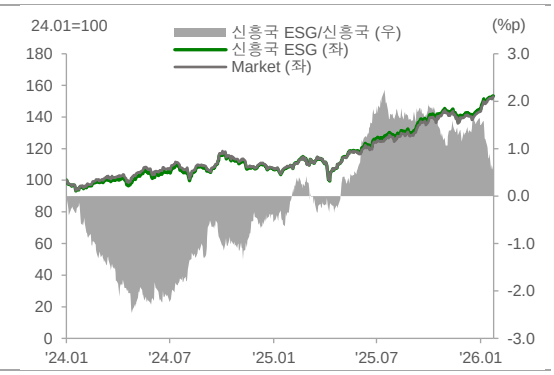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2.06 기준)

선진국 주식 ESG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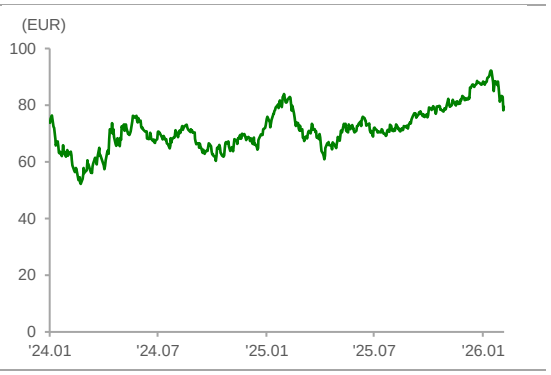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2.06 기준)

신흥국 주식 ESG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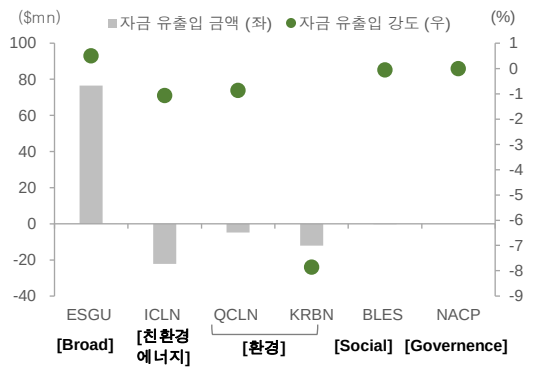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2.06 기준)

탄소배출권 가격 흐름 (EU 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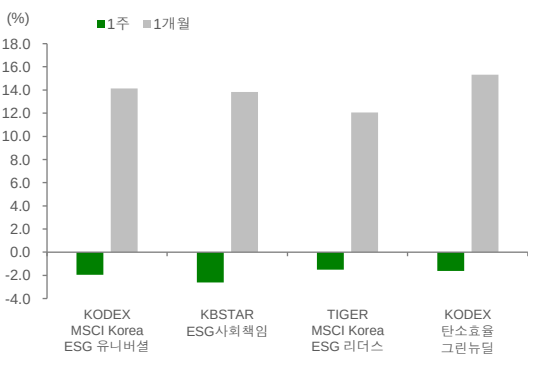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2.06 기준)

미국 상장 ESG ETF 유형별 1개월 자금 유출입 현황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2.06 기준)

국내 상장 ESG ETF들 성과 (1주, 1개월)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2.06 기준)

ESG 관련 DATA - 미국 상장 ESG ETF 현황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구분	AUM (백만달러)	ETF 개수	AUM 비중	ETF 비중
1	Broad	86,364	60	78.0%	61.9%
2	친환경에너지/환경 기업	12,159	13	11.0%	13.4%
3	탄소효율 (Environment)	6,219	13	5.6%	13.4%
4	Social	5,540	5	5.0%	5.2%
5	Governance	412	3	0.4%	3.1%
6	기타	46	3	0.0%	3.1%
ESG 전체		**110,741**	**97**	**100%**	**100%**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2.06 기준)
주1: 미국 상장 ETF들을 전체 유니버스로, ETF 상품 개요 (description)를 기반으로 ESG 관련 키워드 검색 (ESG, Social, Climate, Carbon, Fossil, Environment, Clean, Solar, Green, Renewable, Sustain)을 통해 총 124개를 ESG 전략 기반의 ETF로 판단하였음
주2: 향후 키워드는 변경, 추가될 수 있으며, 정성적 판단 또한 ETF 분류에 반영하였음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개요

구분	ETF	ETF	상장일	개요
Broad	ESGU	iShares ESG Aware MSCI USA ETF	2016-12-02	MSCI USA ESG FOCUS 지수를 추적하는 미국 최대의 ESG ETF
	ESGV	Vanguard ESG US Stock ETF	2018-09-20	FTSE USA All Cap Choice 지수를 추적
	SUSL	iShares ESG MSCI USA Leaders ETF	2019-05-09	MSCI USA ESG LEADERS 지수를 추적
	NULV	Nuveen ESG Large-Cap Value ETF	2016-12-14	MSCI TIAA ESG USA Large-Cap Value 지수를 추적
	NUSC	Nuveen ESG Small-Cap ETF	2016-12-14	MSCI TIAA ESG USA Small-Cap 지수 추적
	ESGE	iShares Inc iShares ESG Aware MSCI EM ETF	2016-06-30	신흥국 투자 ESG ETF
	ESGD	iShares Trust iShares ESG Aware MSCI EAFE ETF	2016-06-30	북미 제외 선진국 ESG ETF
	EAGG	iShares ESG Aware US Aggregate Bond ETF	2018-10-23	채권 ESG ETF 중 가장 큰 규모의 ETF
친환경에너지/환경 기업	ICLN	iShares Global Clean Energy ETF	2008-06-25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투자
	TAN	Invesco Solar ETF	2008-04-15	태양광 관련 기업들로 구성
	QCLN	First Trust NASDAQ Clean Edge Green Energy	2007-02-14	미국 상장 기업 중 클린에너지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
Environment	SPYX	SPDR S&P 500 Fossil Fuel Reserves Free ETF	2015-12-01	S&P500 기업 중 화석연료를 사용하거나 비축하지 않는 기업들에 투자
	CRBN	iShares MSCI ACWI Low Carbon Target ETF	2014-12-09	선진국, 신흥국의 라지캡, 미들캡 중, 매출 대비 탄소 배출량이 적거나,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업들이 투자
	KRBN	KraneShares Global Carbon ETF	2020-07-30	탄소배출권 원자재에 투자하는 ETF
Social	BLES	Inspire Global Hope ETF	2017-02-27	대형주 (시가총액 50억 달러) 중 성서적인 (Biblical) 측면에서 사회, 환경, 거버넌스 부분을 측정하여 투자
Governance	SHE	SPDR SSGA Gender Diversity Index ETF	2016-03-08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 임원과 이사회 구성하는 여성 비율을 고려, 상위 기업에 투자
	NACP	Impact Shares NAACP Minority Empowerment ETF	2018-07-18	소수 인종의 권익을 중시하는 기업들에 투자. 비영리의 ETF로 운용수익은 NAACP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에 기부됨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ESG 관련 DATA - 주요 ESG ETF의 성과와 자금 유출입

해외 –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구분	ETF	운용규모 ($mn)	수익률 (%)				자금 유출입 ($mn)		자금 유출입 강도 (%)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2026 YTD	1개월	2026 YTD
Broad	ESGU	15,446	-2.34	-2.69	0.24	6.36	77	84	0.5	0.5
	ESGV	11,607	-2.63	-3.57	-0.45	5.57	-6	6	-0.1	0.1
	SUSL	1,014	-2.99	-2.82	0.69	7.16	0	0	0.0	0.0
	NULV	1,966	0.46	2.10	6.66	12.61	-21	-48	-1.1	-2.5
	NUSC	1,199	0.05	1.00	7.53	14.42	-119	-126	-9.9	-10.5
	ESGE	6,163	-1.14	1.67	5.90	17.52	222	222	3.6	3.6
	ESGD	11,134	-0.59	1.94	6.43	12.12	-197	-245	-1.8	-2.2
	EAGG	4,567	-0.03	0.08	-0.18	0.85	163	163	3.6	3.6
친환경에너지/ 환경 기업	ICLN	2,079	-0.28	5.81	2.26	33.73	-22	-22	-1.1	-1.1
	TAN	1,505	3.15	8.95	11.15	55.21	354	354	23.5	23.5
Environment	QCLN	564	-3.67	-1.47	3.64	38.18	-5	-5	-0.9	-0.9
	SPYX	2,332	-2.11	-2.45	0.70	6.79	-144	-142	-6.2	-6.1
	CRBN	1,010	-1.84	-1.26	1.85	8.01	12	12	1.2	1.2
	KRBN	153	-3.18	-11.05	-5.28	5.72	-12	-12	-7.8	-7.8
Social	BLES	138	0.58	2.51	7.25	10.92	0	0	-0.1	-0.1
Governance	SHE	283	-2.96	-2.72	2.24	6.13	0	0	0.0	0.0
	NACP	63	-2.79	-1.69	3.05	14.97	0	0	0.0	0.0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2.06 기준)

국내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ETF	운용규모 (억원)	수익률 (%)				자금 유출입 (억원)		자금 유출입 강도(%)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2026 YTD	1개월	2026 YTD
KODEX MSCI Korea ESG유니버셜	158	-1.94	14.13	35.51	80.22	0.0	0.0	0.0	0.0
FOCUS ESG 리더스	110	1.36	12.76	16.26	33.00	0.0	0.0	0.0	0.0
KODEX 200ESG	712	-1.60	14.72	35.42	85.67	0.0	0.0	0.0	0.0
KBStar ESG 사회책임	1,296	-2.62	13.83	36.29	93.18	14.2	-37.8	1.1	-2.9
TIGER MSCI Korea ESG유니버셜	149	-2.08	14.12	35.33	79.29	0.0	0.0	0.0	0.0
TIGER MSCI Korea ESG리더스	152	-1.50	12.05	20.64	74.13	0.0	0.0	0.0	0.0
KODEX 탄소효율그린뉴딜	436	-1.61	15.32	33.48	70.91	0.0	0.0	0.0	0.0
TIGER 탄소효율그린뉴딜	180	-1.63	15.16	33.20	69.89	0.0	0.0	0.0	0.0
HANARO 탄소효율그린뉴딜	160	-1.62	15.24	33.36	70.59	0.0	0.0	0.0	0.0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2.06 기준)
주: KRX 탄소효율그린뉴딜 지수 추종의 ETF들은모두 2021년 2월 4일 상장으로 2021년 YTD 자금 유출입은 상장 이후 흐름임

ESG News Clipping

기업 ESG 뉴스

E (환경)

(2026.01.26) BP·셰브론·엑손·셸, 미시간주 반독점 소송 직면…"재생에너지·전기차 억제" - Impact-on
재생에너지 포기·특허 소송·정보 은폐…조직적 경쟁 제한 주장
석유기업 반발…"근거 없는 소송"

(2026.01.26) 레쥬, 코닥 부지에 5200억원 투자…북미 '섬유-섬유' 순환경제 인프라 구축 - Impact-on
이스트만 비즈니스 파크에 들어서는 '폴리에스터 재생 공장'
혼방 섬유까지 재활용… "원지 대비 탄소 50% 감축"
굿윌·웨이스트 매니지먼트 협력… 원료 수급망 구축
유럽 규제·북미 재쇼어링 흐름 맞물려

(2026.01.28) 포드, '포드 에너지' 출범…BESS 사업에 배터리 총괄 리사 드레이크 전면 배치 - Impact-on
EV 수요 둔화의 신호…"차보다 전력망이 더 빨리 크고 있다"
국내 배터리 업계와 대비…완성차의 '수직 확장' 전략
EV 캐즘 이후 갈림길…포드·GM·테슬라의 다른 선택

(2026.02.03) SSE·아람코까지…AI, 전력망 병목부터 핵융합 안정화까지 확장 - Impact-on
스마트 그리드, '여유 용량'을 데이터로 만든다
재생에너지·가정 단위까지 내려온 AI
전통 에너지와 핵융합으로 확장되는 적용 범위

(2026.02.03) 구글·싱가포르항공, 세계 최초 항공 환경세 앞두고 SAF 시범사업 참여 - Impact-on
항공권 환경세로 SAF 구매 재원 마련
구글, BCG, 테마섹홀딩스 등도 참여

(2026.02.03) CATL, 5C 급속충전에도 3000회 수명 배터리 공개…전기차 '100만 마일 시대' 성큼 - Impact-on
5C 충전에도 3000회 수명…"배터리가 차보다 오래 간다"
수명 늘린 3대 기술 혁신…다음 무대는 나트륨 배터리

(2026.02.04) 빈패스트, 필리핀서 '택시부터 전기차로'...개인용 대신 '상업용 전기차'로 승부 - Impact-on
개인 EV 대신 '많이 달리는 차'부터…그린 전략 가동
동남아 전기화의 현실…플릿이 먼저 움직인다

(2026.02.04) 유엔, 베트남언론 잇따라 삼성전자 베트남 사업장 이슈화 - Impact-on
유엔의 10가지 지적사항은 무엇이었나
유엔, UNGP 위반 가능성 명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와 상충하는 현지 실태

S (사회)

(2026.01.26) MS, '지역사회 우선'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발표 - ESG경제
전기비용 부담 전가 금지·물 사용 최소화 약속 포함 5대 원칙 공개
지역 일자리·세수 확대·AI 교육 투자 등 지역사회 기여 방안 제시

(2026.01.27) 해커 '월드릭스', "나이키, 1.4TB 내부 데이터 탈취" 주장…나이키 사이버 침해 조사 착수 - 데일리시큐
2027년 신제품 설계도까지 노출됐나
'수비'만으로는 한계… 글로벌 기업들 잇따라 '백기'
실적 부진 속 보안 리스크까지… 기업 부담 가중

G (지배구조)

(2026.02.04) BP, 화석연료 유턴에 유럽계 연금들 집단 압박 나서 - Impact-on
"석유·가스 투자, 왜 더 가치 있나 밝혀라"
재생에너지 실패 후 '화석연료 회귀'

정책 ESG 뉴스

ESG

(2026.02.04) 민병덕 "ESG 공시 잘한 기업, 손해 안 보게 하겠다" [지속가능공시 입법화] - 이투데이

민병덕 의원, ESG 공시 개정 법안 발의 예정
"자율공시는 투자자 신뢰·글로벌 정합성 한계"
"EU 역외기업 의무화 2029년, 그 전에 체계 갖춰야"
"트럼프 안티ESG와 별개…자본시장 인프라 문제"

(2026.02.05) 지속가능성 공시 법안 "3년 전면 면책" 조항 논란 - ESG경제

발의 법안, 공시 의무 후 3년간 민·형사·행정 책임 폭넓게 면제
"전체 정보가 아닌 추정정보 등 정보 유형별 면책 설계 필요" 지적
"고의 없는 경우로 한정된 면책일 뿐" 옹호 의견도 나와

(2026.01.27) GRI, 생물다양성·광업 공시 의무화…노동·경제 기준 개정 착수 - Impact-on

생물다양성·광업 표준 발효…섹터 공시 의무 본격화
노동·경제 영향 개정과 디지털 표준 예고
공시 구조 단순화 도구 공개… "영향 투명성에 초점"

E (환경)

(2026.01.30) SAF가 '현실 해법' 되자…미국은 통합, 영국은 인증, 싱가포르는 허브 - Impact-on

미국, SAF 산업 통합 가속…규모·탄소자산 경쟁 본격화
영국, SAF '인증 병목' 직접 해소…상용화 관문에 정책 자원 투입
싱가포르, 의무 혼합 앞세워 아시아 SAF 생산 허브 노린다

(2026.01.26) 중동·북아프리카 재생에너지 44% 성장…사우디·UAE, 태양광·저장 설비 확장 - Impact-on

태양광 초저가와 202GW 파이프라인…MENA 에너지 전환의 가속 엔진
AI 데이터센터와 저장 설비, 전력 수요의 '슈퍼 오프테이커'로 부상

(2026.01.26) 유럽 9개국, 해상풍력 300GW 재확인…트럼프 비판에도 공동 확장 선언 - Impact-on

트럼프 비판 속 300GW 목표 재확인
금융 지원 확대·보조금 체계 보완
해상풍력 둘러싼 미·EU 정책 간극

(2026.01.27) 영국, 철강 무관세 쿼터 축소 검토…중국발 과잉 공급에 보호무역 강화 - Impact-on

중국발 과잉 생산과 보호무역 확산…영국 쿼터 만료 임박
철강업계 "현행 쿼터 과도"…수요기업은 가격 상승 우려

(2026.01.28) 트럼프 행정부, 캘리포니아 연안 해상 시추 재개 검토…에너지 자립 기조 강화 - Impact-on

에너지 자립·화석연료 확대…트럼프식 '에너지 지배력' 복원
환경 보호의 상징 캘리포니아 해안…정치·환경 갈등 재점화

(2026.01.29) 미 에너지부, '원스톱 핵연료 캠퍼스' 추진…원전 연료 전주기 인프라 구축 착수 - Impact-on

연료·재활용·원전 집적… '원스톱 핵연료 캠퍼스' 구상
AI·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촉발…민간 투자 500억달러 기대

G (지배구조)

(2026.02.02) 주주행동주의 겨냥한 SEC 규제 강화…'약식 의견 공시' 통로 차단- Impact-on

SEC, "소액주주 의견 개진 목적의 자발적 제출 급증"
주주행동주의 기관들, 위임장 대결 대신 가성비 전략으로 승부해와
일부 기관투자자 반발… "이사회 불신과 소송 남발 초래할 것"

일반 ESG 뉴스

ESG

(2026.01.29) 상생협력재단,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 발간 - ESG경제

EU옴니버스 패키지, 환경산업 지원법·중대재해처벌법 등 반영
전년 가이드라인 대비 사회 지표 11개 증가, 근로자 작업환경 중시

E (환경)

(2026.02.05) SBTi, 자동차 넷제로 기준 개정… '판매 차량 배출'로 무게중심 이동- Impact-on

'판매 차량 사용(스코프3)'이 70~80%…ZEV 판매 비중도 선택지로
현대차·도요타·폭스바겐 영향…IRA·EU 규제와 '한 묶음'으로 압박

(2026.01.26) SBTi, 과학기반 감축목표 기업 1만개 돌파…글로벌 시총 40% 커버 - Impact-on

기업 커버리지 폭발적 확대…시총 40%·매출 25%
아시아가 글로벌 엔진…중국 228%·일본 1731개 1위
산업재·소비재·소재 섹터 선도…경쟁력 위한 필수 전제

(2026.01.26) 독일·프랑스 경제기관, 수소 '범용 에너지' 가정 수정…400km 인프라 수요 공백 - Impact-on

배터리 전기트럭, 수소 대체 전략에서 우위 확인
400km 수소 파이프라인 가동…공급·수요는 공백
철강 중심 수요 전망도 재검토 국면

(2026.01.26) 유럽국가들 통합 해상풍력 인프라 건설 착수, 100GW 확보 목표 - 비즈니스포스트

북해를 하나의 전력 허브로…초국경 해상풍력 인프라
에너지 안보에서 산업 전략으로 확장

(2026.01.27) 북극발 한파에 미국 가스값 70% 급등…글로벌 LNG 가격 전이 - Impact-on

생산 차질 우려…2021년 대란 재현 경계
유럽·아시아 가스 가격 동반 급등
2026년 공급 확대에도 구조적 변동성 지속

(2026.01.27) 에너지 변동성, 조달 리스크로 전이…공급업체 계약이 흔드는 기업 비용 구조- Impact-on

에너지 리스크, 계약 구조로 이전
관리 체계 밖에 놓인 간접 에너지 리스크
ESG 공시가 포착하지 못하는 계약 리스크

(2026.01.30) IPSASB, 공공부문 최초 기후 공시 국제 기준 제정 - Impact-on

IFRS S2 기반, 공공부문 특성 반영
96건 의견서 검토, 2025년 12월 최종 확정

S (사회)

(2026.01.28) 미 국방 조달이 드러낸 화학 공급망의 구조적 리스크 - Impact-on

ChemPOL III 계약, 화학 공급망 리스크의 구조적 확대 신호
국방 계약의 경고, 독성물질 규제와 조달 전략…공급망의 구조적 제약

G (지배구조)

(2026.02.03) "올해 주총, 개정 상법 시행 전 마지막…거버넌스 재편 분기점" - 연합뉴스

기업거버넌스포럼 세미나…"이사회 안건 예측해 주주제안 정교화해야"

Compliance Notice

■ **투자등급**

종목
- **매수**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종가대비 목표주가 10% 이상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 **중립**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종가대비±10% 이내의 등락이 예상되는 경우
- **매도**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종가대비 목표주가 -10% 이하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산업
- **비중확대**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 대비 높게 가져갈 것을 추천
- **중 립**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과 같게 가져갈 것을 추천
- **비중축소**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 대비 낮게 가져갈 것을 추천

-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로,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발간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의 계좌로 동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작성 담당자는 자료에 게재된 내용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의 괴리율은 감자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반영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당사의 투자의견 비율 고지]

당사의 투자의견 비율			
기준일(20251231)	매수 : 87.18%	중립 : 11.54%	매도 : 1.28%

[당사와의 이해관계 고지]

종목명	LP(유동성공급자)	시장조성자			1%이상보유	계열사 관계여부	채무이행보증	자사주신탁 계약
	ELW	주식	주식선물	주식옵션				
GS건설	-	-	-	-	-	-	-	-

GS건설 : 과거 2년간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동내역

추천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원)	괴리율(%)	
			평균주가	최고(저) 주가
2026-02-09	매수	33000		
2025-07-31	매수	26000	-26.98	-20.77
2024-07-24	매수	23000	-18.05	5.00